

2009 꿈을 펼쳐라

(3) 소설가 이기호 씨



지난해 3월 광주대 문학과 교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소설가 이기호씨의 올 해 목표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과 함께 글 쓰며 공부 그늘진 세상 비추는 빛 될 것”

“소설가, 참 돈이 안 되는 직업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있어 소외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학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일은 우직한 세상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문단은 1970~80년대 출생한 젊은 작가들이 재기 발랄한 감각으로 문학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작년부터 광주대 문학과 교단에 신인의 마음으로 소설가 삶 병행 인터넷 연재 등 활동영역 넓힐 것

소설가 이기호(36)씨 역시 한국문학을 이끌어 갈 작가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99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실험적인 문체를 선보인 장편소설 '최순덕 성령충만기', 동시대 인간군상의 비루한 삶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또 '갈갈갈갈하다가 내 이름 줄 알았지'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개성 있는 문체를 선보여 재능있는 이 야기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특히 그는 무거운 주제를 만화적이면서도 우화적으로 접근해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문학 속 세상'(http://story.media.daum.net)에 연재 중인 장편소설 '사과는 잘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다. '사과는 잘해요'는 사회복지시설에 강제수용돼 화대당하던 20대 초반의 주인공들이 그곳을 탈출한 뒤 경험하는 좌충우돌 일상을 다룬 소설.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과를 대신 해 주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이 씨는 "인터넷 연재를 하다보니 일괄취조로 작품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며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소설"이라고 말했다.

또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는 광주에 동지를 들고 광주대 문학과 교수로서 삶을 살고 있다.

"광주에 연고가 없어 낯설고 힘들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던 것은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이죠. 예향의 도시인데다 단단에 문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광주대 출신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이 씨의 올 해 희망은 학생들과 즐겁게 공부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와 소설도 1년에 1편씩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게 문학이 할 일이지. 특히 소설은 공부 부족하면 바로 실력이 드러나는 냉정한 장르예요. 교수와 소설가로서 삶을 성공적으로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해 아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이탈리아 성가대 5중창단의 특별한 선물

10일 광주 임동성당서 공연 파이프오르간 등 성가 연주



광주 임동성당 파이프 오르간.

광주 임동성당에서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성가 가 울려 퍼진다.

이탈리아 로마 산타루치아 델 콘팔로네 성당 성가대 5중창단이 오는 10일 광주 임동성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주한이탈리아 문화원, 한국전주교교령신도사도직협의회, 주한 교황청 대사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연주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노은동성당, 서울 명동 성당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특히 천주교 미사 때 부르는 성가와 세계 각국의 토속 리듬을 결합시킨 독특한 무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휘자 피에트로 비

자나니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원주민들의 전통음악을 채보, 가톨릭 전통 음악인 그레고리 성가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해온 음악인이다.

이번 공연의 주제이기도 한 '거룩함으로 여행-만백성의 성가는 아프리카 정통 성가와 흑인 영가를 채보해 그레고리 성가와 번갈아 부르는 곡이다.

바하의 전주곡으로 공연의 문을 열며 토마스 루이스 다 빅토리아의 '아베 마리아', 헨델의 '라르고', 흑인 영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레고리 성가인 '목마를 자들이', 맥스 레거의 '어둠과 빛' 등이 공연된다.

단원들이 직접 기타, 북,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며 공연을 진행한다.

한편 임동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은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광주 지역 유일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국내 최고의 오르간 마이스터인 홍성훈 씨가 제작한 '한국형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무도 공연. 문의 062-526-67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달맞이 언덕'

'웃기는 풍경들...' 최석운씨 14~24일 서울전

만화처럼 익살스러운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는 최석운씨가 오는 14~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남만화가 최씨의 웃기는 그림들'을 주제로 인간의 모습과 도시 풍경을 풍자한 신작을 선보인다.

최씨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나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미국과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김유미 시립무용단장 광주 문화계를 이끈다

외국인 발레 마스터 초청 트레이닝 '명성황후' 광주 상품 만들겠다



도 열게 되요."

김 단장은 단원들이 선의 경쟁을 하며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단 직접 안무 한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겁니다. 차세대 대표 발레리나를 키우는 데도 힘을 쏟아야죠."

김 단장은 작품에도 욕심을 부렸다. 우선 5월에는 창작발레 '명성황후'를 공연한다. 이어 '돈키호테'와 초연작품 무대에 올리며 '호두까기인형'은 새로운 버전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명성황후'는 시립극관현악단과 함께 공연하게 돼 아주 색다른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단장으로 있는 동안 저희 무용단이 시민들은 물론이고, 발레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한 김 단장은 전국무용제에서 금상, 연기상 등을 수상하는 등 안무력을 인정받았다.

시민들 수준 높은 우리가락 접하게 광주 만의 소리·색깔 찾겠다

"시립 단체의 역할은 광주의 새로운 국악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레퍼토리로 중요하지만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좀 더 수준높은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전통을 보존하고 새로운 시도들도 병행할 것입니다."

심인택(54·우석대 국악과 교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장은 "최근의 트렌드인 퓨전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전통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 단장은 '관객층에 따른 레퍼토리 차별화'를 강조했다. 누구나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민대상 공연과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의 레퍼토리를 철저히 분리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광주 지역 공연장 현황을 조사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연'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의 국악관현악단은 광주만의 색깔을 갖는 게 중요하죠. 3월에 있을 첫번째 정기연주회에서 제가 추구하는 '색깔'과 '방향'이 드러날 겁니다. 전주가 국악의 도시로 꼽히지만 광주가 훨씬 시장이 넓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단장은 관현악단의 열악한 환경 타파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환경이 최악이에요. 전문 연주자들이 연습하고 공연 준비하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광주주요회관 밖에 공간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언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전주시립이 70명인데 우리는 단원이 50명이 불과해요. 단원 확보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심 단장은 서울대출신으로 전북도립국악원 국악관현악단, 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김미은기자 mekim /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대승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details.

正心 正視 正行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상무랜드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다우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